2017 네덜란드 진출전략

2016. 11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목 차

I. '17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1

1. 2017년 네덜란드 총선에 따른 정치 경제 변화 ····· 1
2. 브렉시트에 따른 반사 이익 기대 ····· 1
3.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 ····· 2

II. 진출환경 분석 ····· 3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3
2. 경제 환경 ····· 5
3. 산업 환경 ····· 5
4. 정책 · 규제 환경 ····· 6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7

III. 시장 분석 ····· 9

1. 수출 ····· 9
2. 투자진출 ····· 11

VI. 시장진출전략 ····· 13

1. 진출전략 개관 ····· 13
2. 분야별 진출전략 ····· 14

첨부. '17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18

Ⅰ '17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17년 상반기 네덜란드 총선에 따른 정체 경제 변화 주목 필요
※ '16년 유럽 내 가장 큰 이슈인 브렉시트 반사이익 기대 효과
※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확대로 인한 우리 기업 진출 기회 모색

1. '17년 네덜란드 총선에 따른 정치 경제 변화

□ '17.3.15일, 네덜란드 총선 결과 주목 필요

○ 제1당인 자유민주당(VVD) 소속 마크 뤼터 총리, 연임 위해 정부 지출 확대
- 내년 3월 총선의 지지율 확보를 위해 '17년 재정 지출 상향 조정
  * 네덜란드는 지역구 없이 100% 정당 명부제를 실시하며 제1당이 연정을 주도함
- 재정부 장관은 정부지출을 약 20억 3,000만 유로 증가할 계획이라고 밝힘
  * 헬스케어, 보안장비, 유아 교육 등 분야 중점 투자 계획

○ 반이민·반이슬람을 표방하는 극우정당인 자유당(PVV) 지지율 19.3% 상승세
- 빌 더러스를 당수로 하는 자유당(VVD)은 2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내년 3월 총선 득세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최근 유럽 각국에서 극우 정당들이 경기침체와 난민 문제를 선동하며 약진 중
- 유럽 각국의 정치권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목 필요

2. 브렉시트에 따른 반사 이익 기대

□ 브렉시트에 따른 네덜란드의 양날의 검

○ 네덜란드 경제기획국, 브렉시트 현실화로 '30년까지 최대 100억 유로(한화 13조원) 손실, GDP 1.2% 하락 예상
- 영국은 네덜란드의 3위 수출국으로 '15년 전체 수출의 8.9%차지
- 네덜란드 내 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품 생산량 5% 이상 감소할 것이며, 수출입 비중이 34.6%로 가장 큰 금속 및 광업 분야는 생산량이 4.8% 감소 예정
- 브렉시트 이후 네덜란드-영국 별도 무역협정(FTA) 체결 시나리오도 예상됨

○ 암스테르담, 유럽 내 제2의 런던을 대체할 투자처로 부상
- 일부 금융권에서는 파운드화 가치 폭락에 따른, 달러 및 엔화 등의 기축통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유럽 금융시장 중심인 런던의 위치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
- 반면 영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親기업 성향을 가진 국가들로 이전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 반등, 전문 인력의 대거 유입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됨

3.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

□ '20년 EU 신재생 에너지 소비 비중 목표 달성 하위권

○ 네덜란드는 EU의 '20년 기후 및 에너지 목표에 뒤쳐져 있음
- '15년 기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5.8%로 목표인 14%에 크게 미달
- EU 회원국 중 '20년 기후 및 에너지 목표(신재생 에너지 비중,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 중 2가지 이상 미달하는 국가는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뿐

□ 풍력단지 개발 확대

○ 현재 북해연안에 730MW 용량의 풍력발전단지 2곳이 건설 중이며, '16년부터 4년간 풍력 발전 용량을 총 3,500MW 확대 계획
- '15년~'16년 북해 연안에 1,400MW 용량의 풍력발전단지 입찰 완료하였으며, 대규모 비용 절감으로 건축함

○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풍력 발전 투자 확대 증가 전망
-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네덜란드의 지형적 특성상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확대 전망

2017년 주요 일정

○ 네덜란드 총선 : '17.3.15
○ 네덜란드 정부 예산안 발표 : '17.9.19(9월 3주 화요일 Prince's Day)

Ⅱ 진출환경 분석

※ 네덜란드는 글로벌 기업 다수가 포진한 혁신 기술 선도 시장
※ 지리적 이점과 튼튼한 물류 인프라로 유럽 유통의 허브로 자리매김
※ 경기 활성화로 산업 투자 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조선(친환경 선박), 의료 바이오(e-health), 신재생 에너지(풍력발전) 산업을 주목함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혁신 기술을 선도하는 시장

○ 글로벌 기업 다수가 네덜란드에 포진해 있으며, 높은 혁신 역량 보유

- 세계 500대 기업 중 12개가 네덜란드에 소재, 유럽 500대 기업 중 24개사가 네덜란드 소재

  * 세계 500대 기업은 Forbes 선정, 유럽 500대 기업은 Financial Times 선정

-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네덜란드는 상위 10위권 내 포진

  * 유통 물류 인프라(2위), ICT 인프라(3위), 지식 및 기술 산출(4위), 규제환경(6위) 등에서 상위권 차지

<글로벌 혁신 지수 순위('14년)>

순위	국가	순위	국가
1	스위스	**11**	**한국**
2	스웨덴	12	룩셈부르크
3	영국	13	아이슬란드
4	미국	14	홍콩
5	핀란드	15	캐나다
6	싱가포르	16	일본
7	아일랜드	17	뉴질랜드
8	덴마크	18	프랑스
9	**네덜란드**	19	호주
10	독일	20	오스트리아

* 출처 : WIPO, Global Innovation Index 2016

<평가항목별 점수비교('16년)>

○ ICT 인프라의 중심으로 유럽 내 데이터 센터 시장으로 부상

- 유럽 4대 데이터 센터 시장인 런던,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파리 중 암스테르담은 '15년 4분기 동기 대비 14% 성장하며 가파른 상승세

  * 구글('14년) : 네덜란드 흐로닝헌 시 7억 7,300만 달러 투자하여 '17년 준공 예정

  * 마이크로소프트('16년) : 네덜란드 노르트홀란드 주 1000ha에 달하는 대규모 농업단지에 데이터 건설 설립 중

□ 유럽 상품 유통의 중요한 관문

○ 네덜란드는 세계 5위 수출국으로 '15년 기준 전 세계 수출의 3.5% 차지

- 수입은 세계 8위로 전 세계 수입의 3.0% 차지

* '15년 기준, 수출액 5,670억 달러, 수입액은 5,062억 달러

<세계 10대 상품 수출국('15년)>

(단위 : 백만 달러)

	국가	수출액	증감률
	세계	16,397,400	-12.3
1	중국	2,280,540	-2.7
2	미국	1,504,570	-7.2
3	독일	1,328,940	-11.1
4	일본	624,801	-9.5
5	**네덜란드**	**566,682**	**-15.6**
6	한국	526,744	-8.0
7	프랑스	505,589	-12.9
8	홍콩	465,483	-1.8
9	영국	459,685	-8.9
10	이탈리아	458,664	-13.4

* 출처 : 한국무역협회

<세계 10대 상품수입국('15년)>

(단위 : 백만 달러)

순번	국가명	수입액	증감률
	세계	16,717,200	-12.0
1	미국	2,241,660	-4.5
2	중국	1,601,760	-18.4
3	독일	1,049,850	-13.0
4	일본	647,990	-20.2
5	영국	625,719	-9.3
6	프랑스	572,182	-15.4
7	홍콩	522,600	-4.1
8	**네덜란드**	**506,256**	**-14.1**
9	캐나다	461,762	-8.9
10	한국	436,499	-16.9

○ 네덜란드는 지리적 이점과 효율적인 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유럽으로 유입되는 상품의 유통 허브 역할을 담당

- 네덜란드는 유럽 3대 시장인 독일, 프랑스, 영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유럽 주요 시장과의 근접성이 뛰어남
- 유럽 최대 항구인 로테르담항과 항공 운송허브로 떠오르는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을 보유함

* '15년 네덜란드 재수출(re-export) 비중은 전체 수출의 42.2% 차지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개방 경제

○ 전체 기업 중 수출 및 수입 활동을 하는 기업 비중이 높음

- 전체 기업의 7.61%가 수입, 4.12%(약 69,000개사)가 수출 활동을 함

* '15년 기준 네덜란드 전체 기업수(1.676.310개사) : 수출(68,995개사), 수입(127,535개사)

○ 네덜란드인들은 유럽 국가 중 최고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보유

- 네덜란드 전체 인구 중 약 86%가 1개 이상의 외국어 구사 가능

2. 경제 환경

□ 네덜란드 경제기획국, '17년 1.7% 성장 전망

○ 민간부문(소비 · 투자 · 수출) 3박자가 경제성장에 기여

- 실질임금 상승과 고용 확대로 임금소득이 늘어났으며, 주택시장의 회복도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고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은 아직 경직되어 있지만, 국내외 수요 증가로 대기업의 투자 여력이 증가하고 있음
- 달러 · 파운드 대비 유로화 평가 절하와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회복으로 수출도 증가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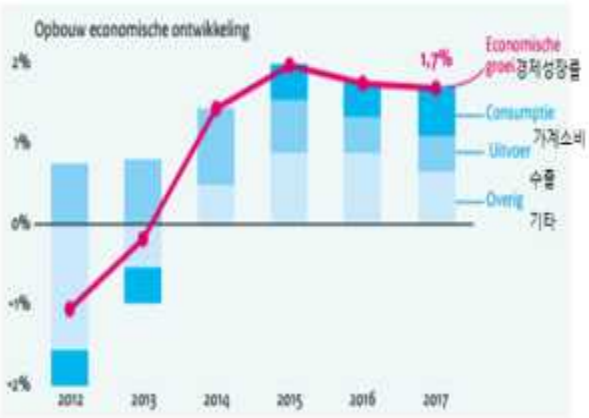
(단위 : %)

	2015년	2016년	2017년
경제성장률	2.0	1.7	1.7
민간소비	1.8	1.3	1.8
정부지출	0.2	0.8	1.0
민간투자	6.2	5.0	3.8
수출	5.0	3.2	3.1
수입	5.8	3.7	3.8
물가상승률	0.2	0.0	0.5
실업률	6.9	6.2	6.2
정부적자	-1.9	-1.1	-0.7

* 출처 : 네덜란드 경제기획국('16.9월)

<경제 주체별 GDP 성장률 기여도('16년)>

(단위 : %)



3. 산업 환경

□ 신재생 에너지 산업

○ '15년 네덜란드 신재생 에너지 소비량은 118PJ로 전체 에너지 소비의 5.8%

-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은 바이오매스(68%), 풍력(21%), 도시 폐기물(17%) 순

* 네덜란드 '20년 EU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 14%
* 연도별 신재생 에너지 소비 비중 : 4.8%('13년) → 5.5%('14년) → 5.8%('15년)

○ 정부는 향후 4년간('16년~'19년) 북해 연안 3개 지역*에 3,500MW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10곳 건설 예정

* 보셀(Borssel) 4개, 남홀란드(Zuid-Holland) 4개, 북홀란드(Noord-Holland) 2개

- 벨기에 근처 북해 연안인 보셀(Borssel) 지역 1,400MW 발전용량의 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할 계획
- '17년~'18년에는 남홀란드, '19년에는 북홀란드 연안에 총 2,100MW의 풍력 발전단지 개발 계획
-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인 SDE+ 프로그램을 운영
- 풍력 발전소 건립으로 현재 약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20년까지 기획·준공·연구 분야에서 약 10,000여개의 고용 창출 기대

□ **식품 산업**

○ 식품 산업은 경기연동성이 적어 '17년에도 온건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식품 산업에서는 지속가능한 식품·유기농 식품에 대한 수요는 견고하게 성장
  * 유기농 슈퍼마켓 체인점 수는 '10년 대비 '15년 약 2배에 가까운 148개로 증가
- 네덜란드 식음료 소매 시장은 슈퍼마켓 등 대형 유통망이 장악하고 있으며, 슈퍼마켓은 전문 식료품점에 비하여 높은 점유율을 보임
- 일부 전문 식료품점은 고부가가치 프리미엄·콘셉트로 차별화 시도

○ 한식에 대한 수요 꾸준히 증가
- 한식은 중국·태국·일본 식품에 비해 아직 시장이 크지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대형 슈퍼마켓 유통망의 일부 점포에 한식 재료가 진출하였으며, 한식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을 크게 증가하고 있음

4. 정책·규제 환경

□ **선도 산업(Top Sector) 중심의 경쟁력 강화 정책**

○ 정부는 '11년부터 9개 선도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무역과 투자유치 및 기술 개발 중점 지원
- 선도 산업 : 농식품, 창조(건축·디자인·게임·패션), 해양 및 수처리, 원예, 생명공학, 하이테크, 화학, 에너지, 물류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수출입 동향

○ '16.7월 기준, 對네덜란드 수출은 22.7억 달러, 수입은 24.5억 달러 기록

- '14.8월 이후 주요 제품 수출 부진이 '15년까지 이어져 수출은 23.8% 감소, 수입은 4.5% 감소
- 무역수지는 '08년~'09년 경제위기 당시 수입액을 초과할 정도로 확대되었으나, 이후 네덜란드의 수입수요가 회복되며 감소하였음

<한국-네덜란드 무역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6년	2,277	-7.2	2,453	-12.8	-175,521
…5월	1,552	0.1	1,819	-4.2	-267,489
…6월	1,862	-8.3	2,130	-6.9	-267,931
…7월	2,277	-7.2	2,453	-12.8	-175,521
2015년	4,024	-24.0	4,349	-5.6	-325,232
2014년	5,296	-3.9	4,605	9.3	690,972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네덜란드 수출 증가율은 점차 둔화

- 대표적으로 수출이 감소한 품목은 제트유(-20.2%), 경유(-28.9%), 최근 급격히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건설중장비(96.2%), 프로세스 컨트롤러(60%), 반도체(56%) 등이 있음

<한국-네덜란드 10대 수출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가율
		2015	2016. 7	(16/15)
	합계	4,024	1,538	-7.2
1	제트유	949	479	-20.2
2	경유	512	228	-28.9
3	건설중장비	59	97	96.2
4	프로세스 콘트롤러	56	60	60
5	개별소재반도체	64	56	56
6	기타정밀화학원료	100	53	53
7	반도체제조용장비	104	53	53
8	공기조절기	76	47	47
9	전화기	114	47	47
10	자동차부품	75	41	41

<한국-네덜란드 10대 수입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가율
		2015	2016. 7	(16/15)
	합계	4,349	2,453	-12.8
1	반도체제조용장비	1,713	803	-41.1
2	기타철구조물	9	145	4,608.3
3	반도체제조용부품	207	125	6.2
4	기타기계류	30	105	634.0
5	화물자동차	72	81	137.2
6	광학렌즈	74	65	70.5
7	나프타	165	48	0.0
8	기타낙농품	87	47	-14.7
9	의약품	71	41	9.6
10	기타정밀화학원료	58	37	4.4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투자진출 동향

○ 네덜란드는 한국의 7번째 투자 진출국이며 유럽 내 최대 투자 진출국

- '16년 상반기 누적 신고 건수는 632건, 투자금액은 151억 2,000만 달러
- 네덜란드는 투자건당 투자금액이 큰 편으로 신고 건수 기준 전체 투자건의 0.38%에 불과하나, 투자 금액은 전체의 3.68% 차지
- 한국의 對네덜란드 투자는 '00년대 후반부에 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08년 금융위기에도 이어지며 '13년 최고를 기록하였음

<한국의 對네덜란드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 건, %, 백만 달러)

구분		신고금액	건수
누적 (1980년~2015년)	국가 전체	448,188	159,764
	네덜란드(비중)	15,065(3.36)	611(0.38)
2016년 1~2분기	국가 전체	21,754	5,077
	네덜란드(비중)	60(0.27)	21(0.41)

* 출처 : 수출입은행

○ 광업, 제조업 분야 중심 투자

- 네덜란드에 누적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광업으로 석유공사의 카자흐스탄 자원개발, 한국전력공사의 사우디 라빅 발전서 건설을 위한 합자회사 설립 등 우회투자 건수 및 금액이 증가

○ R&D 투자진출

-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반도체 리소그래피(노광) 장비업체인 ASML[1]에 총 7억 7,900만 유로(1조 1,000억 원)를 투자
- 삼성전자는 5억 300만 유로(약 7,100억 원)를 투자해 ASML의 지분 3.0%를 인수하고, 이와 별도로 5년 동안 공동 R&D를 위해 2억 7,600만 유로(3,900억 원)를 투자해 차세대 리소그래피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고 공시

1) ASML은 반도체 재료인 웨이퍼(원판)에 극자외선((Extreme Ultraviolet)을 쬐어 미세한 전자회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노광(露光)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전 세계 반도체 노광 장비 시장에서 80% 안팎의 점유율을 보유

Ⅲ 시장 분석

※ 세계 수출 5위 네덜란드는 '15년 유로화 약세와 유럽연합 정치 경제 불안정 확대로 수출입 소폭 감소
※ '15년 네덜란드 투자유입액은 증가세이며, 미국으로부터 투자 급증

1. 수출

□ 네덜란드는 세계 5위 수출국

○ 네덜란드는 교역량, 수출액 기준 세계 5위
- '15년 수출액 5,670억 달러로 세계 수출의 3.5%를 차지. 수입액은 5,060억 달러로 세계 수입의 3.0%를 차지함
  * 전체 교역은 6,185억 달러로 전체 전 세계 교역의 3.2%를 차지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는 독일 다음으로 교역 및 수출액이 크며 프랑스, 영국보다 높은 수준
- 네덜란드는 '07년 이후 매년 1조 달러 이상의 교역규모를 유지해 왔으며, '09년에만 교역액이 1조 달러 미만으로 감소했었음

<세계 주요국 교역 현황>

(단위 : 십억 달러, %)

순위	국가	2015년			2016년 1분기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교역
	합계	16,397	16,717	-320	3,749	3,859	-110
1	중국	2,281	1,602	679	464	326	138
2	미국	1,505	2,242	-737	348	513	-165
3	독일	1,329	1,050	279	322	265	57
4	일본	625	648	-23	152	149	3
5	네덜란드	567	506	60	136	121	15
6	프랑스	506	572	-67	126	145	-19
7	한국	527	436	90	116	94	22
8	이탈리아	459	409	50	109	103	7
9	영국	460	626	-166	102	157	-56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네덜란드의 수출은 '16년 1~4월 1,640억 유로로 전년 대비 2.9% 감소

-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약세로 수출이 소폭 감소
- 수출의 9.7%를 차지하는 석유류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음. 전화기, 의약품, 자동처리기계 등의 수출품목이 크게 감소

<네덜란드 10대 수출국가>

(단위 : 백만 유로, %)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가율
		2015	2016.4	(16/15)
	합계	511,333	164,065	-2.9
	역내	364,479	118,260	-1.2
	역외	146,854	45,805	-7.1
1	독일	114,826	37,252	-2.1
2	벨기에	55,012	17,026	-6.0
3	영국	45,912	14,776	-2.4
4	프랑스	41,080	13,817	3.3
5	이탈리아	19,358	6,277	-2.7
6	스페인	18,516	5,337	-13.0
7	미국	14,941	4,781	-0.6
8	스웨덴	11,548	3,931	6.0
9	폴란드	11,286	3,563	-2.2
10	중국	9,301	3,300	23.3

<네덜란드 10대 수출품>

(단위 : 백만 유로, %)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가율
		2015	2016.4	(16/15)
	합계	511,333	164,065	-2.9
1	석유류	37,727	9,175	-32.4
2	전화기	30,395	7,445	-18
3	자동자료처리기기	18,394	5,610	-1.4
4	의약품	14,104	4,590	-4.1
5	의료기기	7,624	2,646	17.8
6	사무기기부품	7,698	2,589	5.1
7	인쇄기계	7,280	2,567	19
8	인혈	6,919	2,477	27.7
9	자동차류	4,632	2,240	75.4
10	반도체 제조용 장비	5,975	1,986	4.5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네덜란드의 수입은 '16년 1~4월 1,447억 유로로 전년 대비 3.8% 감소

- 전화기, 석유류, 의약품 수입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전체 수입 감소세 주도
- 네덜란드의 주요 수입국은 독일(15.1%), 중국(13.3%), 미국(8.5%), 벨기에(8.3%), 영국(4.9%)

<네덜란드 10대 수입국가>

(단위 : 백만 유로, %)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가율
		2015	2016. 4	(16/15)
	합계	456,370	144,730	-3.8
	역내	203,325	67,136	1.1
	역외	253,044	77,594	-7.6
1	독일	65,473	21,802	0.3
2	중국	65,888	19,197	-8.2
3	미국	21,218.0	2,670	15.1
4	벨기에	37,173.0	11,981	0.7
5	영국	21,218	7,111	5.5
6	프랑스	17,149	5,181	-10.3
7	러시아	14,617	5,008	-0.5
8	일본	10,260	3,352	-2.7
9	이탈리아	9,111.0	2,996	0.8
10	노르웨이	10,819	2,733	-22.8

<네덜란드 10대 수입품>

(단위 : 백만 유로, %)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가율
		2015	2016. 4	(16/15)
	합계	456,370	144,730	-3.8
1	전화기	31,866	8,207	-19.6
2	원유류	31,902	7,104	-34
3	석유류	24,525	6,402	-22.6
4	자동자료처리기기	20,058	6,259	0.1
5	의약품	9,678	3,200	-9.3
6	자동차	9,434	2,612	0.3
7	인쇄기계	7,125	2,309	0.3
8	의료기계	5,854	2,164	19.1
9	전자직접회로	4,861	1,984	41.6
10	인혈	3,766	1,822	60.4

* 출처 : 한국무역협회

2. 투자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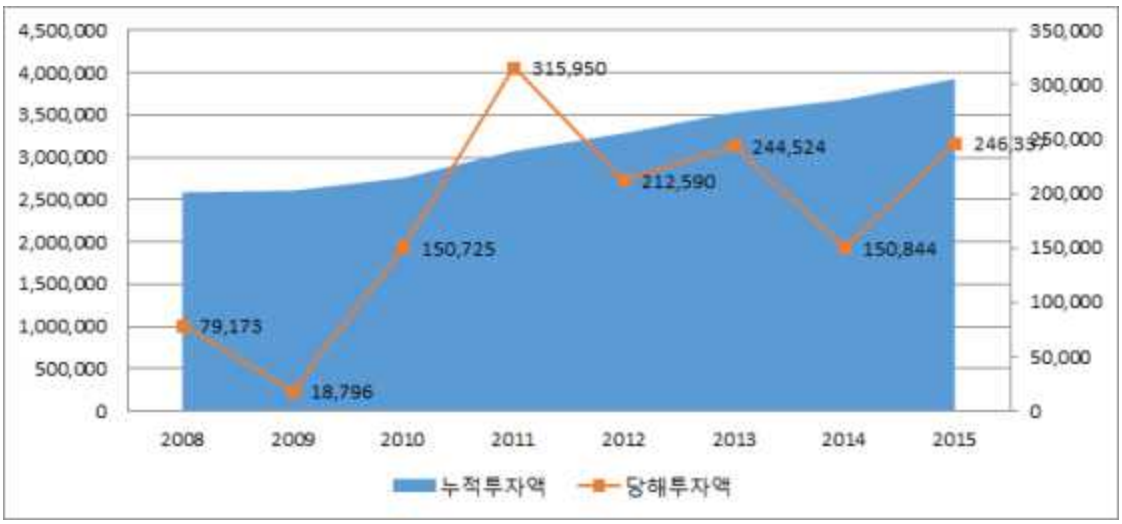
□ 네덜란드의 외국인 투자 동향

○ ’15년 기준 네덜란드의 외국인투자 누적액은 총 3조 9,277억 유로

- ’11년~’13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유럽지역과 미국으로부터 투자가 크게 유입되었음
- ’15년 EU지역으로부터의 누적 투자액은 약 2조 188억 달러로 약 51.4%를 차지하며 ’15년 당해 네덜란드 전체 외국인투자액은 2,463억 유로임

<네덜란드의 누적투자유입액 및 당해투자유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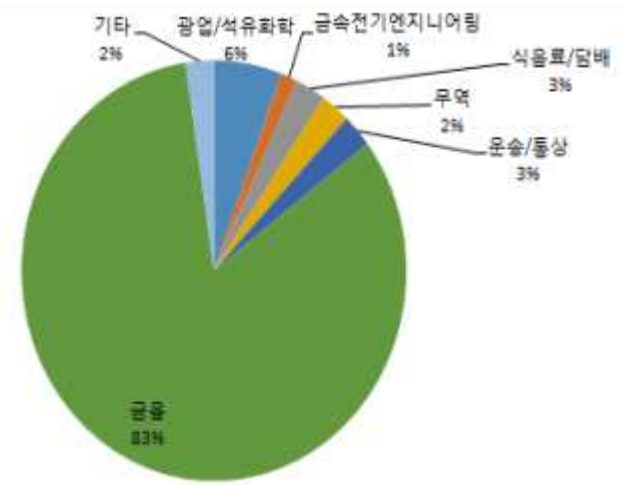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유로)



* 출처 : 네덜란드 중앙은행(DNB)

<네덜란드의 업종별 누적투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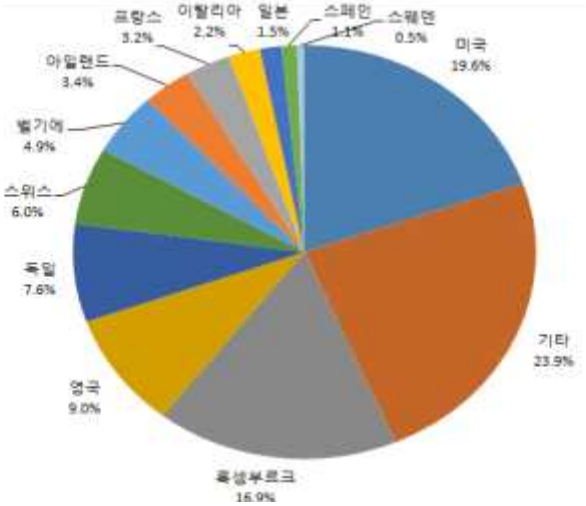
(단위 : %)



* 출처 : 네덜란드 중앙은행(DNB)

<네덜란드의 국가별 누적투자액>

(단위 : %)



* 출처 : 네덜란드 중앙은행(DNB)

- 업종별로는 금융업에 대한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

* '15년 금융업에 대한 누적투자액은 3조 250억 유로로 전체 투자액의 83% 차지

- 주요 투자국은 미국(7,702억 유로), 룩셈부르크(6,654억 유로), 영국(3,354억 유로)

○ '15년 네덜란드로의 투자 프로젝트 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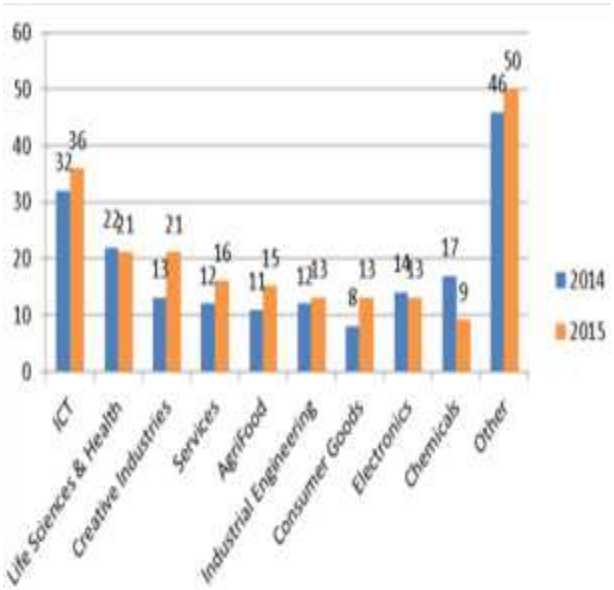
- '15년 네덜란드 투자프로젝트는 총 207건으로, '14년 187건 대비 10.6% 증가

* '15년 유럽에 투자된 총 프로젝트 5,083건(EY's Attractive Survey 2016)

- 이 결과로 약 7,779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나타냄
- 업종별로는 ICT 인프라(36개), 생활 과학(21개), 비즈니스 서비스업(16개) 순임
- 투자목적별로는 판매 및 마케팅(69건), 유럽본사(50건), 유통센터(21건)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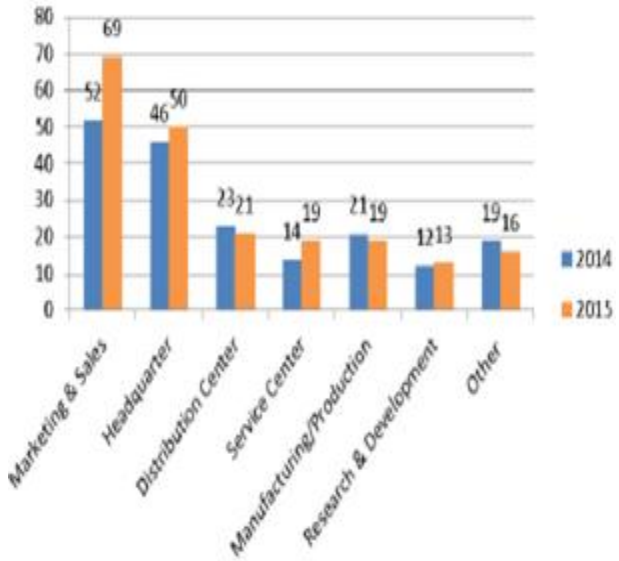
<업종별 투자프로젝트수>

(단위 : 건)



<투자목적별 투자프로젝트수>

(단위 : 건)



* 출처 : 네덜란드투자진흥청(NFIA)

Ⅳ 시장진출전략

※ 수출기업의 위한 기반 구축 및 기본 마케팅 사업을 통한 수출 저변 확대
※ 미래 먹거리 등 전략분야에 대한 대표사업 추진을 통한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
※ 기업의 투자진출형태에 따른 맞춤형 투자진출지원

1. 진출전략 개관

<네덜란드 지역 SWOT 분석>

<Strengths> ○ 유럽의 물류허브로 풍부한 물류 인프라 ○ 인근국 대비 낮은 법인세율(25%) ○ 의사소통에 유리한 현지인의 영어능력 ○ 일반 대중은 높은 구매력	<Opportunities> ○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 향상 ○ 한-EU FTA에 따른 가격 경쟁력 강화 ○ 주요 경제지표 및 소비심리 개선 ○ 9개 톱섹터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지원
<Weaknesses> ○ 제조업 비중이 낮고 아웃소싱에 소극적 태도 ○ 유통 바이어 특성상 가격에 대단히 민감 ○ 한국과 원거리로 인한 과다한 물류비 ○ 바이어의 다품종 소량 구매 성향	<Threats> ○ 유럽 재정위기 영향이 잔존 ○ 원화절상 장기화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 유가하락으로 주력산업(조선해양) 성장 둔화 ○ 인증, 환경 등 높은 진입장벽
<시사점> ○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한 인증, 환경규제 파악으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철저한 대응 ○ FTA 수혜효과가 큰 품목(생활소비재 등)에 대한 내수기업의 수출지원 강화 ○ 친환경 분야(그린조선, 신재생 등) 및 전략분야(의료 등) 현지기업과 파트너십 확대 ○ M&A 등을 통한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기반 구축 및 수출기업 저변확대

○ (인증 및 규제)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한 관련 지침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 50대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인증 DB 구축하여 우리기업의 대응력 강화

○ (유망전시회) 한국관 운영 또는 연계사업 개최
- ISE(비디오, 2월), PLMA(생필품, 5월), IBC(방송장비, 9월) 등

□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 (정부정책) 국내 및 해외 정부의 정책 동향 반영
- 스마트 헬스케어, 태양광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 투자에 대응한 사업 마련

○ (시장특성) 조선해양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그린선박기자재 수용 증가
- 유가하락에 따라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추진이 지연되면 LNG 선과 관련된 기자재 수요 증가하여 이에 대응한 사업 추진

□ 해외투자 진출지원체계 다각화

○ (신규설립) 지사나 법인을 설립하는 기업을 위한 진출지원 패키지
- 법률, 세무, 노무 등에 자문뿐만 아니라 채용설명회를 통한 인력채용 지원

○ (M&A투자) 현지 유망기업을 인수하여 해외 진출하는 기업 지원
- 현지 IB 및 회계법인을 활용하여 기업 수요에 맞춘 매물 정보 제공

2. 분야별 진출전략

2-1. 수출 : 경기 활성화 활용 식품 및 소비재 시장 진출

기회요인	위협요인
• '15년 이후 가계 소비 확대일로 • 실질가치(Value for Money)중시・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소비 트렌드 지속 • 한식 및 한식 식자재에 대한 수요 증가	• 유로화 평가절하로 가격경쟁력 약화 • 복잡한 규정 및 인증 제도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

추진전략	세부내용
① 진출 유망 식품 및 소비재 발굴	• 현지인의 기호와 신수요를 파악하여 진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 발굴 * 현지 소비자들로 패널을 구성하여 수요 설문조사 및 제품에 대한 반응조사 • 유망 식품 및 소비재에 대한 현지 규정・인증 현황 심층 조사 • 대형 유통망 진출사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성공요인 파악
② 식품 판촉전 행사의 전략적 확대	• 아시아 식품 유통망에서 현지 대형 유통망으로 확대 * 타깃 대형 유통망: Albert Heijn, Jumbo • 오프라인 매장에서 추진한 사업을 온라인 사업으로 다각화
③ 브랜드 마케팅 강화로 고품질 시장 공략	• 국내기업 및 현지 벤더와 무역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브랜드 마케팅 강화 • 현지 트렌드와 부합하는 브랜드 컨셉 및 스토리 개발 지원

<수출유망품목>

선박기자재	HS Code	84081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5/US$백만)	51	수입액('15/US$백만)	0.7
	선정사유	친환경 해운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선박 시장 성장 전망		
	시장동향	네덜란드 조선산업의 연간 매출액 약 60억 유로 상당. 다년간 지속된 조선산업의 불황이 회복되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음. '14년 말 유가하락에 따라 오프쇼어 비즈니스도 침체된 상태임에도 네덜란드는 10억 유로 상당의 주문을 수주하며 선전		
	경쟁동향	선박 및 엔진부품 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인지도가 높은 편이며, 일본(Mitsubishi Motors), 중국(Siyangengine) 등과 경쟁		
	진출방안	한국이 축적한 선박 기자재 분야 기술과 노하우를 결집하여 파트너십 형성 가능		
풍력발전설비	HS Code	848340(기어박스) / 841290(터빈)	수입관세율(%)	0%
	수입액('15/US$백만)	197 / 157	수입액('15/US$백만)	197 / 157
	선정사유	네덜란드의 풍력발전 확대에 따른 수요 예상		
	시장동향	'14년 풍력에너지 발전용량은 2,873MW 이중 92%는 지상 풍력발전(2,645MW)임. '15년~'19년간 3,500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예정		
	경쟁동향	다년간 온쇼어 풍력단지를 개발해온 경험으로 고품질 제품만 유통되며,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글로벌기업과의 경쟁 치열		
	진출방안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현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동시에 네덜란드와 한국 풍력산업협회 간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네덜란드의 협력 파트너 물색 필요		
화장품	HS Code	3304	수입관세율(%)	0%
	수입액('15/US$백만)	733	수입액('15/US$백만)	5
	선정사유	네덜란드 화장품 시장은 까다로운 인증제도로 진입장벽이 높지만, 중저가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높음.		
	시장동향	네덜란드 여성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화장이 인기를 끌며, BB 크림 등 화장품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 '12년~'17년 화장품 산업의 매출액은 연평균 0.5% 성장 예상		
	경쟁동향	중저가와 고가 시장이 양분되어 있음. 수입 유통업체 대다수는 독일, 스위스, 프랑스의 고급브랜드만을 취급하고 있음.		

	진출방안	인증과 라벨링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 현재 네덜란드에 괄목할 저가 화장품 브랜드가 많지 않으므로 제품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제품군의 진출 가능성 있음.		
한국식품	HS Code	190230(라면류)	수입관세율(%)	0%
	수입액('15/US$백만)	82	수입액('15/US$백만)	6
	선정사유	네덜란드 내 중국·태국 식품시장이 이미 성숙기에 접어듦에 따라 한국식품이 새로운 비즈니스 활로로 등장		
	시장동향	한국식품의 인기가 높아져 아시안 식품 유통업체들은 한국식품 전담 구매담당자를 채용해 적극적으로 수요에 대응. 최근 한국식품이 네덜란드 최대 슈퍼마켓 체인 알버트하인의 일부 지점에 입점하는 성과를 거둠.		
	경쟁동향	네덜란드 현지에는 중국, 인도,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식당을 다수 찾아볼 수 있으며, 슈퍼마켓에서도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식재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음. 일본, 중국 식재료는 점차 유통이 확대되고 있음.		
	진출방안	현지 식품규제에 대한 대비 및 현지화 된 패키징 필요.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인지도가 매우 낮으므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 필수		
건강주스	HS Code	22029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5/US$백만)	330	수입액('15/US$백만)	3
	선정사유	웰빙족 및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한국의 알로에 베라 주스 및 기타 원료 주스 진출 기회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		
	시장동향	네덜란드 주스시장은 7.45억 유로규모이며, 100% 과일주스는 그 중 1.96억 유로임.		
	경쟁동향	네덜란드 현지업체로는 Royal FrieslandCampina 사가 야채·과일주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아시안계 특수음료시장에서는 중국, 태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일본 등의 기업이 인지도를 보유(태국의 Mogu Mogu 등)		
	진출방안	제품의 '건강'·'유기농' 특성을 부각시켜야 하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도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음. 대형 슈퍼마켓 유통망뿐만 아니라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유기농 전문 슈퍼마켓 타기팅(targeting) 가능		

2-2. 투자 : M&A 활성화 및 R&D 투자 유치 확대

□ Cross Border M&A 활성화

○ 유럽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부실자산 매각, 은행자본 확충, 사업축소와 철수 등에 힘입어 기업 간 인수합병(M&A) 거래시장 활성화

○ 단기간 내 유럽시장 진출, 기술력 확보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네덜란드 기업 M&A 매물 및 프로젝트 발굴 집중

* '14.9월 한솔제지, 네덜란드 Telrol社 인수. Telrol의 Carrpe 유통망을 통해 한솔제지 공급

□ R&D 투자유치

○ 네덜란드는 전체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으로 전체 기업매출의의 50%, 고용비중 60%를 차지

○ 네덜란드 중소기업 중 기술기업 비중이 높으며, 특히 반도체, 나노, 생명공학, 나노 등에 강점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산업에 도입이 필요한 기술은 R&D 투자유치 사업 집중

첨부 '17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한-네덜란드 주요 산업 클러스터 협력관계 구축 사업

○ 추진배경 : 네덜란드는 농·식품, 물류, 에너지, 창조경제 등 9개 분야를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Food Valley 등 각종 산업별 클러스터가 발달

○ 사업시기 : '17.2월(농·식품), 4월(창의산업), 6월(물류·유통망) 등

○ 사업내용

- 한-네덜란드 주요산업 클러스터 간 세미나·포럼 및 수출·투자 상담회 개최
- 상호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관련사업과 연계 및 정보교류·사업홍보 강화 등에 적극 활용

* 예: 식품(Food Valley)의 경우, 5월 개최예정인 서울식품전 단체관 참가 유도 및 익산 국가 식품클러스터와 협력 관계 촉진 등

□ (선박용 기자재) 한-유럽 조선해양 기자재 로드쇼

○ 추진배경 : 한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선해양 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 지원 사업 방향에 맞춰 유럽 조선해양 시장 마케팅 확대

* 네 정부는 해양산업에서 친환경에너지, 특수·전문분야 등 중점 육성

○ 사업시기 : '17.2분기(잠정)

- 상반기 로드쇼 사업 후, 하반기 현지 유력전시회 마케팅 연계 활용

* METS(국제해양박람회, 매년 11월/암스테르담 개최)

* Europort(로테르담, 11월), Offshore Energy(암스테르담, 10월) 등 연계

○ 사업내용 : 네덜란드 조선해양 분야 발주처와 친환경 부품 등 선박기자재 제조·수출기업 10개사 내외 로드쇼 지원(인근무역관 협업 가능)

□ (식품) Korean Food Week(상담회·포럼 등) 개최

○ 추진배경 : 네덜란드는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농업 수출국가이며, 푸드밸리에 구축된 대규모 식품클러스터와 다양한 협력사업 가능

* 네 Food Valley는 전북 익산에 조성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롤 모델

* 네 농식품기업 생산성은 유럽 평균 농업 생산성 대비 5배 높음

- '17 서울식품전(5월) 참가를 통한 양국 식품산업 협력 추진 연관 행사

○ 사업시기 : ’17.10월

○ 사업내용 : Dutch Agri Food Week* 행사기간에 맞춰 동 행사 개최(투자유치/무역 융복합사절단 및 포럼)

* DAFW: 매년 10월 세계 식량의 날 전후로 네덜란드 전역에서 2주간 개최(식품 전시, 생산, 신기술 개발 등 노하우 공유 및 플랫폼 제공 행사)

□ (K-Beauty) 프리미엄 소비재 진출지원 사업

○ 추진배경 : 한국산 화장품, 미용/헬스케어제품 등 한국산 프리미엄 소비재에 대한 관심 지속 증가

* 한국산 화장품 공급 희망 바이어들의 무역관 사업 참여 증가세
* 네덜란드는 특히 푸드 및 헬스밸리가 발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식품기술과 의약기술이 통합된 기능성 식품에 관심이 늘고 있음

○ 사업시기 : ’17.3분기(잠정)

○ 사업내용

- 프리미엄 소비재 관련 수출상담회, 시연회, 포럼 등 수행
- 화장품, 미용제품, 헬스케어제품 제조・수출기업 약 10개사 지원

□ (투자유치) 유럽 에너지 신산업 투자유치 사절단

○ 추진 배경

- 산업부 ’17년 IR 활동계획(PA16-2893)에 의거, 네덜란드 에너지신산업(풍력발전 프로젝트 중심) 투자유치의 일환
- ’16.9월 네덜란드 총리 사절단 방한 시 체결한 풍력발전 프로젝트 F/U

* ’16.9.27 2건의 풍력 관련 MoU 체결(해상풍력용 설계기술 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

○ 사업시기 : ’17.10.10～14

- 런던 바이오헬스 IR과 더불어, 산업부에서 지정한 유럽 신산업 IR 추진

○ 사업내용

- 네덜란드 소재 풍력에너지 분야 강소기업 투자유치 노력

* EWT, Tres4, Van Oord, SWECO 등

- 산업부와 협의하여 국내 참가기관을 5~7개 내외로 선정하여 추진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이소정	과장	암스테르담 무역관	65-6426-7111	happyending@kotra.or.kr
2	강지숙	대리	본사 구미팀	02-3460-7596	kjs@kotra.or.kr